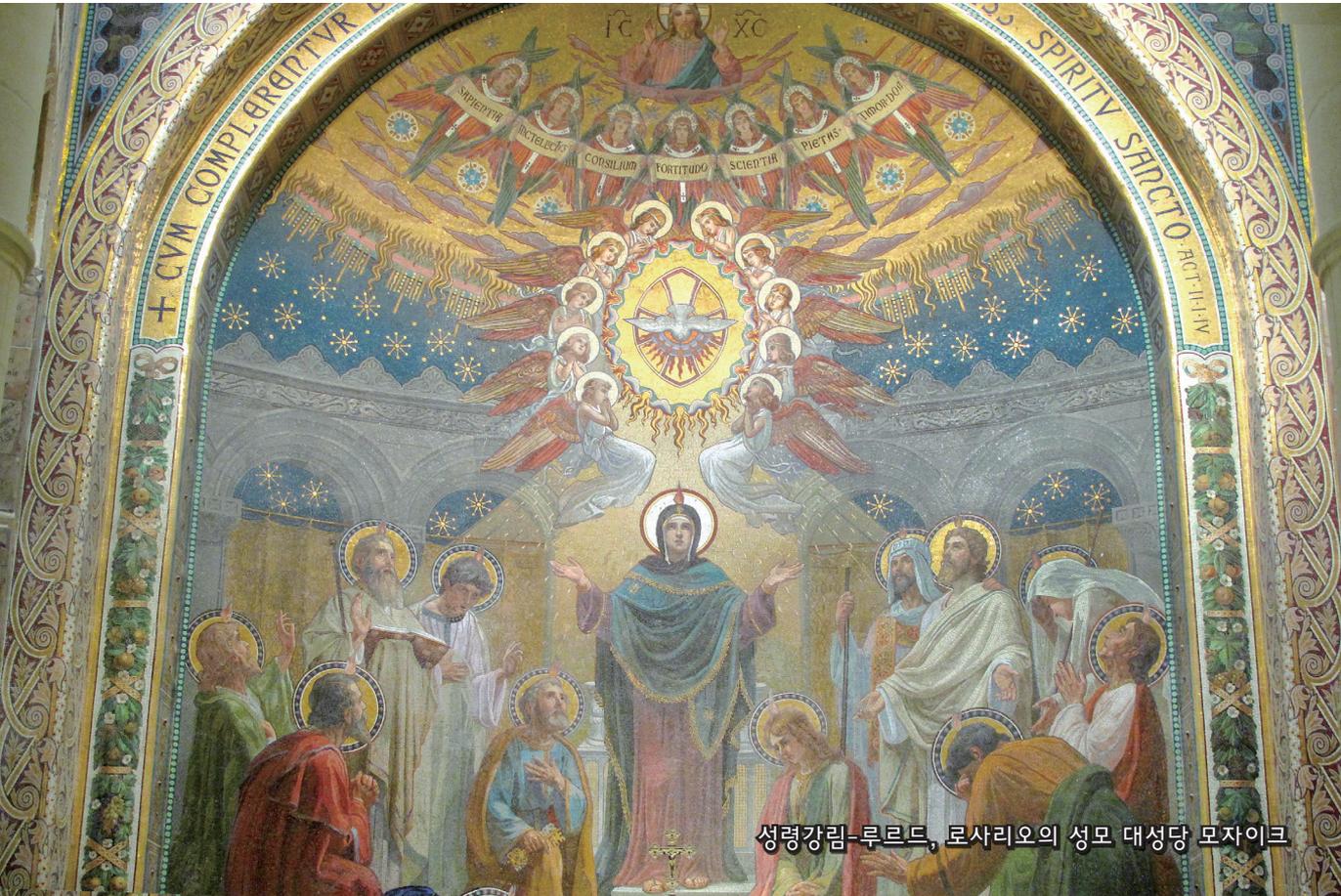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니다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3동 225-1 (053)250-3048~9 <http://www.daegujobo.or.kr>



성령강림-루르드, 로사리오의 성모 대성당 모자이크

† 오늘의 전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성령을 받아라.(요한 20,19-23 참조)

성령께서는 사랑의 끈으로 우리를 묶어 예수님 안에 한 몸이 되게 해 주십니다. 성령의 은사는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만 내리지 않고 공동체를 위해, 즉 그 사람의 주변에 은혜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내립니다. 나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이 지금 내 가까이 있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제1독서 사도 2,1-11 **제2독서** 1코린 12,3㉔-7,12-13 **복음** 요한 20,19-23

입당송 주님의 영은 온 세상을 채우시고 만물을 살리시며 온갖 말을 다 아시네. 알렐루야.

화답송 ◎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누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영성체송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하느님의 위업을 선포하였네. 알렐루야.



“성령을 받아라.”

조운제 토마스 데 아퀴노 신부 | 대구가톨릭대학교



언젠가부터 학원가에 외국어 열풍이 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어와 일어 그리고 요즘은 중국어 또한 그 열풍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직업을 얻기가 힘들어지면서 또 다른 능력이 필요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던 해외여행이 이제 해외연수라는 이름으로 중·고등학생에게까지 번져 있습니다. 방학이면 한 번씩 다녀와야 한다는 생각으로 방학초가 되면 공항에 학생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참 많이도 배우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외국인들과 만나도 자신 있게 대화하고 서로를 나눌 수 있는 세상이 되나 봅니다.

그러나 정작 그렇게 소통이 잘 되는데도 불구하고 속마음은 더욱더 몰라만 가는 것 같습니다.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서 다투는 경우도 많고 가족 간의 갈등도 더 많아집니다. 세계로 눈을 돌리면 이런 소통은 더 많이 막혀 있습니다.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아주 적은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아주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듣지 못해서 전쟁과 폭력과 위협에 내몰고 있습니다.

오늘 독서의 사도행전은 말이 통하지 않

는 사람들도 성령으로 인하여 서로 알아듣게 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기적입니다. 외국어를 알게 되어서 생긴 기적이 아니라, 피부색이 다르고 조상이 달라도 서로를 바라보는 따뜻한 마음으로 보게 되고 듣게 되는, 마음이 열리는 기적입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어떤 집에 모여 모두 문을 닫아걸고 있었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자신 있게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도 서로 마음으로 보게 되고 듣게 된 것, 쉽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는 것,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성령”이 계십니다.

오늘 성령 강림 대축일을 보내면서 우리도 서로 다르지만 따뜻한 마음으로 보게 되고 듣게 되는 은총을 청해야겠습니다. 가족 간에, 이웃 간에, 민족 간에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서 싸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첫 마디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나에게 필요한 말만 배우고 듣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성령께 귀 기울이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빛물**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일생 전체, 곧 말씀과 행적과 태도를 포함한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이것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만 가르치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써 이것이 지상에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완성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신앙의 해 교리 퀴즈⑥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가르침⑭

우리말로 기도하시는 예수님

지금껏 전례현장의 가르침을 살펴보면 서 전례가 사람의 의식이기 이전에 예수님의 행위이며,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로서 마음과 몸을 다해 거기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가르침들은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보다 피부에 와 닿는 변화도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이른바 ‘토착화’입니다.

성령으로 가득 차 다른 언어들로 말하다

공의회 이전의 미사는 모두 라틴말 경문을 사용했습니다. 독서나 복음 말씀을 제 나라 말로 읽기는 하였지만, 성찬기도를 포함한 전례 기도문은 모두 라틴어였고 대부분의 신자들은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말뿐 아니라 전례의 여러 가지 표현들도 지방마다 다른 문화적 특색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라틴말 경문과 예식의 전통을 여전히 존중하면서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자기네 말과 풍습을 전례에 도입하는 것을 허용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을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아버지께 미사성제를 드리신다면, 우리말로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예수님의 지체인 우리가 함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례의 쇄신과 토착화

전례현장은 21장부터 40장에 이르는 부

분에서 ‘전례 개혁’이라는 세부적인 전례 쇄신에 대한 문제를 언급합니다. 이 부분에서 전례현장은 미사나 전례력의 쇄신과 같은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지만, 그 이면에는 ‘전례의 토착화’라는 과제를 깔고 있습니다. 전례가 인간의 의식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님의 활동이고 예수님의 지체인 우리가 함께 하는 행위라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 일을 우리의 삶과 역사와 문화 안에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체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토착화입니다.

원천으로 돌아가서 바른 표현을 배우기

토착화는 전례를 우리 방식으로 바꾸자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식으로 한다고 예수님께서 성찬례의 재료로 사용하신 밀떡과 포도주 대신 백설기와 막걸리를 쓸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토착화의 과제는 우리 가운데서 사제직을 수행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전례 가운데서 어떻게 알아뵈느냐, 또 어떻게 그분이 행하시는 사제직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토착화의 제일 원칙은 성경과 성전을 통해 원천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전례는 신기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와 풍습을 통해 참되고 유일한 신앙의 올바른 표현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



“()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상에서 개시되었다. ‘()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활동과 현존 안에서 사람들에게 빛나기 시작한다.’ 교회는 이것의 싹이며 시작이다. 그 열매는 베드로에게 맡겨졌다.”(가톨릭교회교리서 567항)

이 코너를 오래 정답을 적으시고 이름, 세례명, 소속본당 기재 후 교구 문화홍보실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성령쇄신운동

문화홍보실

오순절에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하던 사도들이 성령을 받아 그 능력으로 병자들을 치유하고 용감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세례와 견진을 통해 받은 성령의 은혜를 더욱 깊이 체험하고 하느님을 중심에 두는 삶을 살도록 돕는 '성령쇄신운동'은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은 현대의 대표적인 신심운동입니다.

성령쇄신운동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끝난 이듬해인 1967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 있는 듀케인 대학교 젊은이들이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일어난 성령강림을 묵상하며 피정을 하던 중에 예수님의 현존과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미국의 여러 대학들에서 기도모임이 생겨났으며 각 본당과 수도원으로 급속히 확산되었습니다.



2012년 5월 19일에 성김대건기념관에서 열린 성령쇄신 춘계 대구대회

성령쇄신운동은 주로 성령세미나와 성령기도회로 나뉘는데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전 세계로 확대되어 가장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신심운동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의 성령쇄신운동은 1974년 평신도들을 위한 첫 성령세미나를 시작으로 각 교구로 확산되었습니다. 한국 성령쇄신운동 조직은 주교회의의 인준을 받은 '한국가톨릭성령쇄신봉사자협의회'라는 전국 기구의 산하

에 각 교구별로 '성령쇄신봉사회'를 두고 지구 봉사회, 청년 봉사회 등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대구대교구에서는 성령강림 이후 초대 공동체의 삶을 목표로 본당 단위 기도회가 열리고 있으며 매주 금요일에는 철야기도회가, 한 달에 한 번 성령 안에 말씀과 찬양이 함께하는 피정이 열리고 있습니다. 또한 해마다 교구 전체 성령대회가 개최되고 있는데 오는 25일에 성김대건기념관에서 성령 강림 대축일을 기념하는 춘계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 40여 년간 영적쇄신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충실한 일꾼으로 만들어내는 견인차 역할을 해 온 성령쇄신운동은 사회와 교회 안에서 각자 은사에 걸맞은 봉사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복음선교에 일익을 담당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쇄신운동은 신기한 체험이나 개인적인 은사 중심의 신심운동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고자 성령의 능력에 스스로를 내맡기고 순명하는데 그 근본을 두는 신심운동입니다. **필문**



미사의 무게

산림감시원 대장이 어느 날 친구인 정육점 주인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습니다. 누추한 옷차림의 한 늙은 여인이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정육점 주인은 잠시 대화를 멈추고 그 여인에게 무엇을 살 것인지 물었습니다. “끼니가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돈은 없지만 전 약간의 고기가 꼭 필요한데 조금만 주실 수 없는지요?” 산림감시원 대장은 정육점 주인이 과연 그녀에게 고기를 줄 것인지 궁금해 했고, 어안이 병병해진 정육점 주인은 여인을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고기를 주면 그 대가로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해 줄 수 있소?” 여인은 “미안합니다. 전 돈이 없답니다. 그렇지만 당신을 위해서 미사 참례를 한 번 하겠습니다.” 정육점 주인과 산림감시원 대장은 종교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속으로 그 여인을 비웃었습니다. “좋소, 지금 가서 나를 위하여 미사를 드리고 다시 돌아오시오. 그럼 나는 그 미사의 가치만큼 고기를 주겠소.” 여인은 얼마 후 다시 돌아와 “당신을 위하여 미사 참례를 했습니다.” 라고 쓴 종이를 건넸습니다.

정육점 주인은 살다보니 별 희한한 일을 다 겪는다고 속으로 말하며 장난삼아 저울의 한 쪽에 부인이 내민 종이쪽지를 올려놓고, 다른 한 쪽에는 아주 작은 뼈 한 조각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나 종이가 놓인 낮은 쪽의 저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뼈를 내려놓고 한 점의 고기를 저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저울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육점 주인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이번에는 큰 덩어리의 고기를 덩석 집어 저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나 저울은 처음 그대로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저울이 고장 난 것은 아닌가 하고 저울의 위아래를 자세히 살펴보았지만 저울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정육점 주인은 충격을 받았고 처음에 부인을 경멸했던 일을 깊이 후회하며 정중하게 부인에게 사과했습니다. “부인, 앞으로 부인이 원하시는 만큼의 고기를 매일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일을 지켜 본 산림감시원 대장은 그 후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가톨릭에 입교한 다음,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미사에 열심히 참례하는 신자가 된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깊은 신앙생활을 곁에서 보며 자란 그의 두 아들은 각각 예수회와 예수성심회의 사제가 되었습니다. **필독**

금주의 성인



성녀 리타 (5월 22일)

이탈리아에서 태어나신 리타 성녀께서는 어려서부터 수도 성소에 관심을 갖고 수녀가 되길 원하셨으나 부모의 반대로 12세의 어린나이에 강제로 혼인하셨다. 이렇게 시작된 18년간의 결혼생활은 불행하였다. 학대를 일삼던 남편은 살해당하고 두 아들마저 병으로 죽게 되자 성녀께서는 카시아의 성 아우구스티노회에 입회하여 어려운 이들을 돕고 단식과 고행에 전념하셨는데 가시관 쓰신 예수님과 똑같은 상처를 입는 은혜를 받았다. 성녀께서는 1900년에 레오 13세 교황님으로부터 시성되었고

좌절하고 실망한 사람들의 수호성인으로 공경받고 있다.



■ 왜관 성베네딕도회 박현동 아빠스, 교구장 예방



교구장 대주교님께서는 5월 8일(수) 오후 3시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의 제5대 아빠스로 선출된 박현동 블라시오 아빠스의 예방을 받고 축하 인사를 전하셨다. 신임 아빠스의 축복식은 오는 6월 20일(목) 오전 10시 30분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에서 거행될 예정이다.

■ 청소년 사목 특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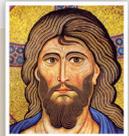


교구 청소년국(국장: 주국진 보나벤투라 신부)에서는 대전교구 소속 강석준 미카엘 신부님을 초청하여 5월 10일(금) 오후 1시부터 5시 30분까지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에서 '영성을 통한 주일학교'라는 주제로 특강을 개최하였다.

'신앙의 해' 기념 영성사진 콘테스트

매일 참여해주시는 교우 여러분들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안에 살아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함께 나누는 영성사진 콘테스트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공모주제 :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2. 참가자격 : 교구 내에 교적을 두고 있는 가톨릭 신자
3. 공모기간 : 12. 11. 25.(일) ~ 13. 10. 31.(목)
4. 출품방법 : 공식 응모 사이트에서 온라인 접수 (<http://contest.daegu.jubo.or.kr>)



2012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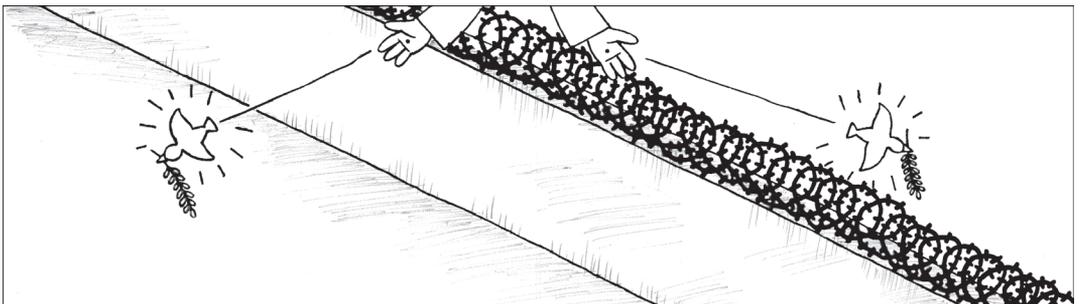
'신앙의 해' 기념 대구주보 교리퀴즈 안내

부활 제6주일(5월 5일) '신앙의 해' 교리퀴즈 정답은 <위격>입니다.

당첨자 : 임아름(마리나, 연일), 이명자(엘리사벳, 옥수), 정지연(철염가타리나, 중방), 정미향(세실리아, 수성), 전은미(클라라, 성동)

하루빨리 주님의 평화가 이땅에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안내

- 2대리구 교정사목후원회 월례미사 5월 20일(월) 10:30 범어성당 김천지역 밀알회 미사 5월 21일(화) 10:00 평화성당
- 포항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5월 20일(월) 11:00 죽도성당 김천지역 교정사목후원회 월례미사 5월 22일(수) 10:00 평화성당
- 한티순교성지 후원회 미사 5월 20일(월) 11:00 수성성당 구미지역 학교 복음화를 위한 미사 5월 22일(수) 19:00 신명성당

성소 | 피정

예수회 성소 모임

일시: 5.25(토) 16:00
 장소: 예수회 한국관구 본부
 주제: 서원의 삶 (가난, 정결, 순명)
 문의: (010)8589-9880,
 vocsj@hanmail.net

한티순교성지 '예수마음기도' 일일 피정

일시: 5.27(월) 10:00~16:00 미사
 지도: 권민자 수녀
 문의: (054)975-5151

2박 3일 무료 피정(작은예수회)

기간: 5.24(금)~26(일)
 장소: 가평작은예수마을
 내용: 모든 질병과 어둠을 버리기
 출발: 대구시민회관 11:40
 문의: 박테레사, (016)646-0583

첫 토요일 성모신심 피정

일시: 6.1(토) 10:00, 다사성당
 주제: 성모님과 예수성심의 일치
 일정: 미사, 면담, 고해성사
 특강: 문봉한(야고보) 신부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2박 3일: 5.24(금) 17:30~26(일)
 4박 5일: 6.17(월) 14:00~21(금)
 8박 9일: 6.24(월) 14:00~7.2(화)
 에니어그램: 5.31(금) 15:30~6.2(일)
 문의: 예수마음배움터, (031)946-2337~8

Show Bible : 야곱 · 요셉

성경 속 인물을 영상으로 만나는 시간
 기간: 5.22~6.19(매주 수) 19:00~21:00
 장소: 바오로딸서원(청년 / 2만 원)
 문의: 양체사리아수녀, (010)2503-5185

하느님... 그리고 내 마음듣기

일시: 매달 세 번째 주 일요일 14:00
 장소: 상동성당 수녀원
 문의: 예수성심전교수녀회,
 (010)9330-3104

인간조건과 영적여정 3박 4일 피정

기간: 6.6(목)~9(일), 씨든영성의 집
 주제: 두려움이 사랑을 만날 때
 (나를 찾아가는 영적 여정)
 강사: 김종순(실비아) 수녀
 문의: 사랑의씨튼수녀회,
 (02)421-1968

교육 | 모집

성모기사회 젊은이 옛멤버 모임-미사

일시: 5.26(일) 14:00
 장소: 폰벤투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문의: 박상규 신부, (010)5380-8615

카리타스 달서구보금자리 입소인 모집

시설구분: 실비부담 장애인 그룹홈
 장소: 달서구 소재 아파트 및 주택
 대상: 성인 지적장애인(30명)
 이용료: 소득 수준별 실비 부담
 문의: 721-7090 / (010)2369-3140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 교육생 모집

개강: 6.3(월) 월, 수, 금 18:00, 토 14:00
 모집: 취업반, 자격증취득반, 봉사자반
 대상: 남녀, 학력, 나이 제한없음 (주4회)
 문의: 대가대평교원, 660-5554~7

대구시청소년수련원 필리핀 영어연수

대상: 초4~중3(선착순: 50명)
 기간: 7.20(토) 출발, 4주
 문의: 656-6655(ARS 4번)
 대학생 해외봉사·어학연수 모집 중
 문의: 593-1273

인공신장실 야간투석
 인공신장실 야간투석
 인지기능 방면
 의약품내과
 생당도의 2번 출구
 영남의과대학 외래교수 원장 김영진 (안드레아)
 ☎ 053)656-7533

ME 66차 부부의
달성피부과
 의학박사 / 피부과전문의
 손재경(다미아노) 김인주(레지나)
 아토피센터 · 여드름 · 흉터 · 주름 · 탈모
 7호광장 두류역 2,3번 출구
 T.566-4333

우리 아이 첫보약은 원방한의원에서
원방한의원
 前 대구가톨릭대 교수
 現 경북의대 가정의학과 외래교수
 의학박사(전문의) · 한의사 : 이정현(요셉)
 ☎431-7100 달서구 월성푸르지오 옆
 원더풀스파랜드 3층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병원
안심내과
 (30년 전통의 (구)이상계 내과)
 내과 전문의 6인 진료 765-3771
 심장 · 순환기, 소화기 · 내시경 전문
 공단검진, 5대암검진, 각종 종합검진
 이상계(바오로), 김영섭(베드로), 김지영(대건안드레아)
 들안길 네거리 ~ 황금성당 사이

신랑각시 결혼정보
 전문직 · 초혼 · 재혼 · 만혼
 서울 사무실 휴대 앞
 이원교(요안나) | 20년 경력
 (053)471-0707 · 016-817-8888
 http://www.sk1004.co.kr
 남구 봉덕동 영대병원 사거리

길 안 건축
 리모델링 전문업
 옥상방수, 철, 지붕계량
 판별, 창호, 단열시공
 ☎ 053)556-6257 김기석
 010-6608-6257 (다니엘)

장윤제 연합치과
 뉴욕대학교 임플란트과 임상교수
 원장 장윤제(바르나바)
 대구은행 본점 맞은편
 T. (053)752-9797

KCB 포장이사서비스
 꼼꼼히 딱 하루 한집만!!
 대표전화 1577-2400
 무료전화 080-053-1000
 이옥수(아네스) 010-5048-7739

행사 | 모임

성령 강림 대축일 기념 성령대회

일시: 5.25(토) 10:00~18:00
 장소: 성김대건기념관
 강사: 황창연(베네딕도) 신부, 대상: 일반
 입장권: 본당기도회, 당일입구(2천 원)
 문의: 대구성령봉사회, (054)954-0951

전례꽃잎이연구회 월례회

일시: 5.20(월) 14: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네이버카페: 대구대교구 전례꽃잎연구회

교육 | 모임

지성인을 위한 토요 신앙 특강

일시: 5.25(토) 10:00, 남산동 대신학원
 주제: 자연과 함께 하는 성경읽기
 강사: 황중렬(레오)교수, 회비: 5천 원
 문의: 신학교육원, 660-5105~6

틴스타 성교육 지도자과정 워크숍

기간: 6.15(토)~16(일), 22(토)~23(일)
 장소: 4대리구청(포항)
 신청: 5.25(토)까지
 문의: (054)278-0667 / 250-3037

본당사회복지학교(기본-주일반) 개설

개강: 6.16(일), 과정: 12시간(총 4주)
 대상: 사회복지에 관심있는 모든 신자
 문의: 3대리구 사회복지, 641-3456

오르간 성악 지휘 전공반 모집

문의: 교구 음악원 255-4847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

사진창작: 6.3(월) 10:00
 오카리나 성가: 6.3(월) 12:30
 하모니카 성가반주: 6.5(수) 14:00
 가곡성가·발성: 6.4(화, 목) 13:30
 문의: 254-6115(성모당 내)

가톨릭푸터 컴퓨터 취업사관학교

미용자격증반 수강생 모집
 기간: 6.1(토)~12.31(화)
 대상: 20명(만15세 이상~24세)
 미만의 학교 밖 위기 청소년)
 문의: 764-8536 / 다음카페: Cum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한 ME주말

310차: 6.7(금)~ 9(일), 한티피정의 집
 문의: 대구ME, 983-0521
 교원들을 위한 에듀힐링 신청 환영

대구가톨릭문화관 강좌 교육생 모집

천연비누·화장품, 퀼트, 리본공예, POP
 통기타, 우쿨렐레, 바이올린, 오카리나
 플룻, 일본어회화 / 문의: 476-6211

요셉발 건강회(발은 제2의 심장)

발을 보면 우리의 건강이 보인다.
 누구나 알기쉽게 접할수 있는 건강법
 일자: 매주 토 14:00~16:00, 가톨릭문화관
 문의: 476-7774 / (010)3817-5255
<http://www.footfather.com>

관덕정 주관 6월 영성특강

일시: 6.1(토) 16:00
 강사: 옥현진 시몬 주교
 문의: 관덕정, 254-0151

채용 | 안내

성심유치원 기사·조리사 모집

면접: 6.1(토) 10:00, 유치원
 자격: 대형면허, 조리사
 35세~55세
 서류: 면허증, 이력서, 자기소개서
 마감: 5.13(월)~24(금)
 문의: 553-1090 / (070)7565-1060

교구법원 공시

아래 공시되는 분은 교구법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혼인
 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성명: 장세희
 문의: 253-9550

가톨릭가정폭력상담소 이용안내

내용: 가정폭력, 부부갈등, 가족문제 등
 이용방법: 전화, 내방, 사이버 상담
 문의: 253-1401
<http://www.with1401.or.kr>

2013년 대구대교구 주소록 판매

가격: 3천 원(총 90쪽)
 문의: 교구 문화홍보실,
 250-3048~9

책임보험 1억 가입업체
도우미익스프레스
 포장이사·사무실이사·일반이사
 대표 양말순(루시아)
 591-2424 656-9911
 010-2008-2329

라식, 백내장 수술 전문안과
대구연세안과
 아이라식, 안내렌즈, 노안수술
 의 학 박사
 현, 연세대의료교수 원장 박 중 원(소시오)
 (지하철 1호선 영대병원역 2번 출구)
 ☎ 626-8881~5

2484 익스프레스
 칠곡 313-2484
 서구 566-2484
 달서구 637-2484
 수성구 761-2484
 함덕기(마오오) 011-514-3855

한승도시락
 대구 ☎053)963-1188
 한의대점 053)817-3114
 오영숙(바울라), 장종미(아네스)
 *단체주문시 대구·경산전역 배달가능
 (휴대용 카드 단말기 결제가능)
 대학생MT, 체육대회, 성지순례, 성당단체
 주문시 '아침의집' 에서 기념품 증정
<http://www.hsd.co.kr>

비염·축농증
 코 질환 집중 치료
 대구수성점 **코비한의원**
 대표원장 이 판 제(루카)
 ☎ 053-753-9795 수성구청역 4번 출구 앞

나가사키성지순례
 제3차 6월05일~08일(3박4일)
 순례경비 59만 5천원
T. 053)253-3399
 (주)성지여행 조철래(유스티노)

新대구정신과
 New Daegu psychiatric clinic
 불면증, 강년기 우울증, 불안, 치매
 식사장애(거식증, 폭식증), 비만, 스트레스
 원장·전문의 김 정 윤(라파엘)
 지하철 2호선 감삼역 2번 출구 앞
T. 053)566-0364

16년 경력, 보증보험가입
"이현숙의 결혼이야기"
 국내 2006.04 매일신문 인터뷰 (피플 "세상속으로")
 국제 2009-2010 경북 공무원 교육원 다문화강사
 054)458-3223 수신나 010-6571-3385
리스토리결혼정보
 구미시외버스터미널 본관2층